

시끌벅적 e-스타



90일너? 네티즌들 "또 광고겠지..."

개똥녀, 똥장녀, 화장녀, 도자기녀에 이어 90일너까지 등장했다. '90일너'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과 네이트 등에는 8일 '나는 90일을 삽니다'라는 제목의 1분 10초짜리 동영상이 올라왔다. 동영상에는 흰색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길거리에서 맨발로 '나는 90일을 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서 있다.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모여들다가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90일너'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 여성이 들고 있는 종이에 적힌 '90일을 삽니

다'라는 문구 때문으로, "똥하지 않아?", "상업적 광고 동영상 아니겠느냐"며 특정 업체의 광고를 위해 동원된 마케팅 수단일 것이라는 게 상당수 네티즌들의 의견이다. 올라온 지 하루만에 조회수가 1천권을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선 끌기에 성공한 셈이다. 대체 무슨 내용의 광고인지, '90일을 삽니다'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 흰 옷을 입은 여성의 정체도 서 있다.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모여들다가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90일너'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 여성이 들고 있는 종이에 적힌 '90일을 삽니

오늘의 유머

도둑의 비법

경찰서에 한 남자가 찾아와서 물었다. "저는 요 앞에 사는데 어제 저희 집에 들어온 도둑을 잡아 가셨죠?" 그러자 경찰은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어 격정스런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뇨, 그냥 그 도둑하고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 해서요." "그건 곤란합니다.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규정 상 어쩔 수 없네요." 그러자 그 남자가 말하길 "그게 아니고요. 전 단지 어떻게 마누라를 깨우지 않고 집에 들어왔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아무리 조심해도 매번 실패를 하거든요."

여자가 아이들 낳으면 이렇게 달라진다

돈에 대한 가치관
애 하나 : 많으면 뭘 해, 돈은 조금 부족한 듯하게 좋아.
애 둘 : 돈! 돈! 돈! 불려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잡은 사람
애 하나 : 오늘 또 해? 당신 건강이 걱정돼!
애 둘 : 이런 데 뭐 한단 쓰고 돈버는 데나 힘 써!
와이셔츠 다림질
애 하나 : 이리 뒤, 남자가 왜 이리걸 해? 내가 할게.
애 둘 :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돼? 애 뒤치다꺼리도 많은데.
멋진 남자 텔런트를 보는 때도
애 하나 : 인간성은 별무일거야, 자기가 짱 좋아.
애 둘 : 애들만 없어도... 저런 남자와 연애도 해 볼텐데...
자녀 키우기
애 하나 : 하나는 외롭겠지?
애 둘 : 하나만 낳을 걸 그랬나? 키우기가 왜 이리 힘들어?

대단한 할아버지

한 노인이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했다. 신부님이 물었다. "할아버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신부님, 저는 올해 75세인데 50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지요." "그 동안 다른 여자에게 눈길 한번 안 줬는데, 두 달 전에 28세 아가씨를 만나 외도를 하고 말았습니까?" "성당엔 오늘 평생 처음 오는 거예요. 저는 불교 신자거든요." "그럼 지금 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랑했는데 신부님에게만 안했거든요.

우유 아저씨

출근할 때마다 아내에게 키스를 해주는 정다운 남편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아침, 서두르다 키스를 잊은 남편은 부리나케 집으로 돌아갔다. 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의 허리를 껴안으며 목에 키스를 한 남편. 아내는 돌아보지도 않으며 대답했다. "아~잉! 아저씨, 오늘은 우유 넣지 마세요!"

식인종의 식사시간

식인종 가족의 저녁 식사에 건강한 남자 하나가 올라왔다. 몸통은 할아버지, 다리는 아빠, 양팔은 엄마. 그리고 조그마한 가운데 거시기는 아들에게 자기 몫이 너무 적어 열이 받은 아들, 계속 투덜거리는데 그런 아들을 보고 씨익 웃으며 엄마가 하는 말, "그런 투덜투덜 먹는 거야"

뉴스퀴즈

63. 광주제일고가 지난 3일 제 41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적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 전국 대회 통산 20번째 우승의 금지탑을 세웠습니다. 지난 1923년 창단된 광주제일고 야구부는 80~90년대 들어 전국 대회에서만 11개의 우승기를 휩쓸며 한국 야구의 명문고로 자기매김했습니다. 광주제일고를 나와 국내 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광주제일고 출신이 아닌 야구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박찬호 ② 김병현 ③ 최희섭 ④ 이종범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0일(음 3월 24일 甲辰)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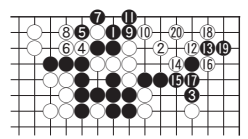
바둑소식

김승준, 명인전 2승2패

김승준 9단이 최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기 강원랜드배 명인전 본선리그에서 김기용 3단을 328수 만에 흑 4집 반으로 꺾고 1승을 추가했다. 이 대국에서 김승준 9단은 우상귀와 좌하귀, 하변에서 실리를 구축하며 기선을 잡았다. 이후 김 9단은 우변을 깨트리면서 추격전을 벌인 백을 여유있게 따돌리며 승부를 마무리했다. 김 9단은 현재 리그성적 2승2패를 기록 중이다. 제3기 강원랜드배 명인전은 강원랜드와 한국일보가 후원하고 바둑TV가 주최한다. 제한시간은 각 2시간에 1분 초읽기 3회이며, 우승상금은 1억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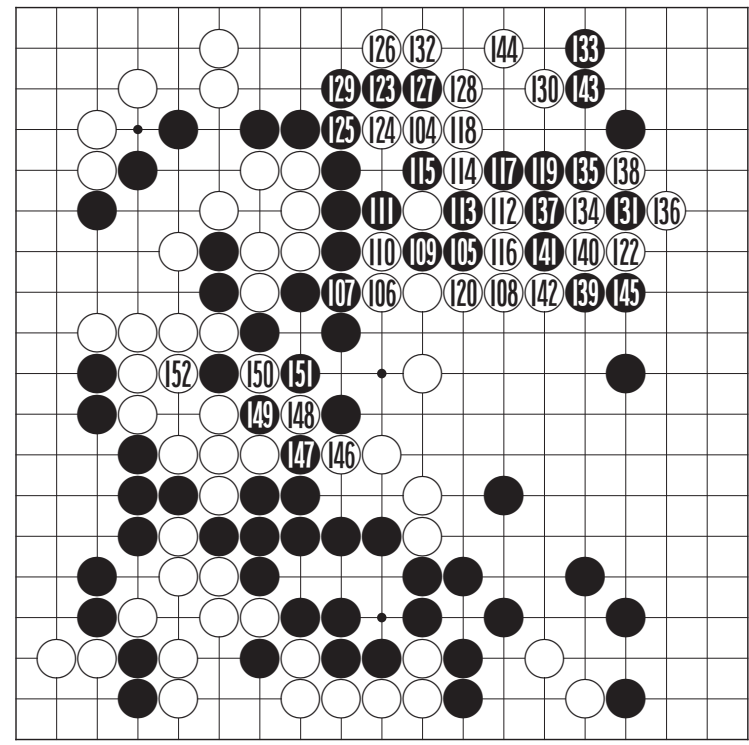
기세넘치는 반발 7보(104~152)

KT바 왕위전 16강 白 윤찬희 초단 黑 목진석 9단



〈참고도〉

목진석 9단은 백 104를 보더니 지나가는 길에 105로 들여다 보았는데 윤찬희 초단이 즉각 106, 108로 반발하면서 이 수가 반상에 엄청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다. 바둑은 상대의 의중을 파악해 이를 거스르는 것이 요체다. '순파라 두면 진다'는 격언이 말해주듯 상대가 이끄는대로 따라 다녀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윤찬희가 108로 반발한 것은 기세넘치는 한 수며 상대의 의표를 제대로 찌르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FA 한국마사회



굿모닝 잉글리쉬 <901>

I'm new here
전 방금 여기에 왔는데요

A: Excuse me, but where can I find a drugstore?
B: I'm sorry, but I'm new here. Why don't you ask at the police box right across the street?
A: Thank you. I'll do that.
B: You're welcome.
A: 실례합니다만, 약국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B: 죄송합니다만, 전 방금 이곳에 왔습니다. 건너편 길에 있는 경찰초소에 물어보세요.
A: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B: 천만에요.

Why don't you? : ~하세요
the police box : 경찰 초소
drugstore : 약국
Excuse me~ : 실례합니다만~

오하요우 니혼고 <901>

もう少(すこ)し低(ひく)めにしてくれる
조금 낮게 해줄래

A: カラオケって本當(ほんとう)に樂(たの)しいね。
B: そうだね。ストレス解消(かいしょう)にはもってこいだね。
A: この歌(うた)少(すこ)し音程(おんてい)が高(たか)いな。もう少(すこ)し低(ひく)めにして。
B: うん、早(はや)さはこれくらいいいね。
A: 노래방 정말 재미있군요.
B: 그렇지. 스트레스 해소에는 안성맞춤이지.
A: 이 노래 조금 음정이 조금 높는데, 조금 낮게 해줄래?
B: 응. 빠르기는 이 정도가 좋지.

もってこいだ: 안성맞춤, 절호의찬스
音程(おんてい): 음정
低(ひく)め: 낮음
してくれる: ~해줄래

니하오 쑹구위 <92>

她很想来韩国
그녀는 한국에 매우 와보고 싶어 해요

A: 你妈妈来过韩国吗?
Ni mama lai guo Hanguo ma?
니 마마 라이 구워 한국워 마?
B: 没来过, 她很想来韩国.
Mei lai guo, ta hen xiang lai Hanguo.
메이 라이 구워, 타 현원 시양 라이 한국워.
A: 她想什么时候来?
Ta xiang shenme shihou lai?
타 시양 셴머 시허우 라이?
B: 她想春天来, 因为春天的韩国最漂亮.
Ta xiang chuntian lai, yinwei chuntian de Hanguo zui piaoliang.
타 시양 춘티엔 라이, 인웨이 춘티엔타 한국워 쭤에이 피아오리양.
A: 너희 엄마 한국에 오신 적 있으시니?
B: 오신 적 없어, 한국에 매우 오고 싶어 해서.
A: 엄마는 언제 오시길 원하시어?
B: 봄에 오고 싶어 해서, 왜냐하면 봄에 한국이 제일 예쁘잖아.

没+동사+过 [mei+guo] ~해 본 적 없다
春天 [chuntian] 봄

한자 이야기 <518>

芝蘭之交 (지란지교)
지초 지, 난초 란, 어조사 지, 사귄 교

지란지교(芝蘭之交)는 곧 지초(芝草)와 난초(蘭草)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초도 난초도 둘 다 귀하고 향기로운 풀이다. 그래서 지란지교는 고상(高尚)하고 우아(優雅)하여, 수준 높은 친구 관계를 비유한다. 우정(友情)하면 흔히 관포지교(管鮑之交)를 떠올린다. 관중이 친구인 포숙을 괴롭히고 끝내 포숙의 아내(忍辱)와 희생에 바탕하여 절친한 친구사이가 된 관포지교와 고상하고 우아한 친구사이인 지란지교는 그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 지란지교는 친구를 괴롭힘도 없을 뿐더러, 친구의 잘못을 끝까지 인내함도 없다. 공자는 지란지교를 설명하여 "착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하니, 그 향기에 동화(同化)되기 때문이다. 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절인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악취를 맡지 못하니, 그 냄새에 동화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孔子家語) 유안진은 지란지교의 대상을 "다만, 그의 인품이 /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 깊고 신신하며, / 술과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다. (지란지교를 꿈꾸며)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